



"외손자는 업고 친손자는 걸리면서 업은 아이 발 시리다 빨리 가자 한다"

뜻: 딸이 낳은 아이(외손자)가 너무 예뻐서, 아들이 낳은 아이(친손자)보다 더 챙겨주고 아낄 때 쓰는 말이에요.

이 속담과 관련 있는 말 편애 · 사랑 · 인정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외	손	자	는	▽	업	고	▽	친	손	자	는
걸	리	면	서	▽	업	은	▽	아	이	▽	발
시	리	다	▽	빨	리	▽	가	자	▽	한	다

2단계 따라 쓰기 열린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외	손	자	는	▽	업	고	▽	친	손	자	는
걸	리	면	서	▽	업	은	▽	아	이	▽	발
시	리	다	▽	빨	리	▽	가	자	▽	한	다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				▽			▽				
				▽			▽			▽	
				▽			▽			▽	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

[오 사 자 리] [오 고] [아 사 자 리] [가 리 모 사] [오 오] [오 오] [바] [사 리 다] [빠 리] [가 자] [한 다]

웹에서 보기

